

# 제주도 관광산업의 지역경제효과 분석

## An Analysis of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Tourism Industry in Cheju Island

송재호\* · 고성보\*\* · 윤동구\*\*\*  
(Song, Jae Ho) · (Ko, Sung Bo) · (Yun, Dong Koo)

### < 개 요 >

본 연구는 내도 관광객의 지출액을 관광시장별로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적용하여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관광객 지출의 지역경제 전체의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세분된 관광시장별 경제적 효과까지 추정되고 있다.

분석 결과, 제주도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총산출 측면에서 2조 2,576억원, 고용 측면에서 11만 6,326명, 총소득 1조 5,861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관광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아주 높은 파급효과를 갖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관광 세분시장별 분석결과, 내국인 중에서 가족여행 관광객들이, 외국인의 세분시장별로는 일본계가 가장 높은 파급효과를 보이고 있어 이들 시장을 제주관광의 주요 표적시장으로 삼아야 함을 시사한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관광산업이야말로 제주도가 중점적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할 전략산업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 I. 서 론

제주지역 경제는 지난 30여년간 농림어업과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거쳐왔다. 산업별 구조변화의 추이를 보면 1990년대에 들어와 농림수산업과 광공업의 비중이 감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개발학과 전임강사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소한 반면, 관광산업을 비롯한 3차산업의 비중은 더욱 높아져 관광산업이 제주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의 발표를 토대로 서비스 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72% 정도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지, 1995년 이후 관광산업의 정확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규모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연구결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제주도에서는 무엇보다 관광소비와 관광소득의 증가는 관광산업 자체의 생산, 고용, 소득증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및 제주지역 전산업의 생산, 고용 및 소득에도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유관산업 및 이에 관련한 산업에의 기여도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내도 관광객의 지출액이 지역경제에 파급시키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실제 조사·산출된 관광객 지출액을 비조사법으로 개발된 제주지역 산업연관표형에 적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고용·소득의 측면에서 각각 추정한다.

특히 본 연구의 주된 초점은 관광시장별로 세분화하여 경제파급규모를 추정함으로써 관광객 지출 전체의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세분시장별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계량해 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관광이 지역경제에 생산, 고용, 소득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정설의 확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떠한 형태의 관광객들이 혹은 어느 나라에서 내도한 관광객들이 얼마만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가를 자세히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조사 및 계량기법을 병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로서 진행한다.

첫째, 1995년 기준 비조사법으로 개발된 제주지역의 산업연관표를 분석기준으로 삼는다.

둘째, 1999년 제주도 방문 관광객의 지출액을 산정하고, 이를 위의 제주지역 산업연관표에 적용·분석한다.

셋째, 적용·분석에 있어서 제주방문 관광객의 지출액을 관광시장세분화별로 구분하여 내국인의 경우 여행형태별, 외국인의 경우 국적별로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넷째, 제주도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시사점을 탐색한다.

## II. 관련 이론 및 연구동향

### 2.1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지역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보통1년) 동안 지역경제내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행렬형식으로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이다.

지역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산업부문은 서로 다른 산업부문으로부터 원재료, 연료 등의 중간재를 구입하고 여기에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를 다른 산업부문에 중간재로 팔거나 최종소비자에게 소비재나 자본재 등으로 판매하게 된다.

지역산업연관표는 이와 같은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첫째, 산업상호간의 중간재 거래부분, 둘째, 각 산업부문의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 구입부분, 셋째, 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최종소비자에게의 판매부분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표 1>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내 생 부 문		외 생 부 문		수 입	총산출액
		l ··· j ··· n	중 간 수요계	소비투자수출	최 종 수요계		
내생 부문	l	$X_{ll} \cdots X_{lj} \cdots X_{ln}$	$ID_l$	$C_l \quad I_l \quad E_l$	$Y_l$	$M_l$	$X_l$
	:	$\vdots \quad \vdots \quad \vdots$	$\vdots$	$\vdots \quad \vdots \quad \vdots$	$\vdots$	$\vdots$	$\vdots$
	I	$X_{nl} \cdots X_{nj} \cdots X_{nn}$	$ID_n$	$C_n \quad I_n \quad E_n$	$Y_n$	$M_n$	$X_n$
	n	$X_{nl} \cdots X_{nj} \cdots X_{nn}$	$ID_n$	$C_n \quad I_n \quad E_n$	$Y_n$	$M_n$	$X_n$
	중 간 투입액	$\Pi_l \cdots \Pi_j \cdots \Pi_n$					
외생 부문	부 가 가치세	$V_l \cdots V_j \cdots V_n$					
	총투입액	$X_l \cdots X_j \cdots X_n$					

지역산업연관표<sup>1)</sup>의 세로부문을 살펴보면, j산업의 경우  $X_j$  생산을 위해 원재료  $\Pi_j (= \sum_{i=1}^n X_{ij})$ 와 본원적 생산요소  $V_j$ 를 구입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X_j = \Pi_j (= \sum_{i=1}^n X_{ij}) + V_j$$

가로부문을 살펴보면, i산업의 국내(지역)생산  $X_i$ 와 수입(또는 이입)  $M_i$ 를 합한 총 공급( $X_i + M_i$ )은 중간재  $ID_i (= \sum_{j=1}^n X_{ij})$ 와 소비, 투자, 수출(또는 이출) 등을 포함한 최종수요  $Y_i (= C_i + I_i + E_i)$ 로 판매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X_i + M_i) = ID_i (= \sum_{j=1}^n X_{ij}) + Y_i (= C_i + I_i + E_i)$$

한편, 지역산업연관표와 지역소득계정과의 관계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지역산업연관표와 지역소득계정과의 관계

	중 간 수 요	최종수요	수입(-)	총 산 출
중 간 투 입	A (산업간순환)	F-M (지출국민소득)		X
부 가 가 치	(생산국민소득 또는 분배국민소득)			
총 투 입	X			

1) 산업연관표의 세로(열: Column)방향은 각 산업부문이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생산비용의 구성 즉, 투입구조를 나타낸다. 이는 원재료 투입을 나타내는 중간투입(Intermediate Input)부분과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 소모, 간접세, 보조금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입 비용을 나타내는 부가가치(Value-added)부분으로 구분되는데 그 합계를 총투입액이라 한다. 가로(행: Row)방향은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 판매구조 즉, 배분구조를 나타낸다. 이는 중간재로 판매되는 중간수요(Intermediate Demand)부분과 소비재, 자본재, 수출(실제로는移出을 의미함) 등 최종재로 판매되는 최종 수요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중간수요와 최종 수요를 합한 것을 총수요액이라 하며, 여기서 수입(실제로는移入을 의미함)을 공제한 것을 총산출액이라 한다. 총산출액과 총투입액은 항상 일치한다. 상품의 산업부문 상호간의 거래인 중간수요와 중간투입을 기록한 부분을 내생부문이라 하며, 최종수요와 부가가치를 기록한 부분을 외생부문이라 한다.

이 표를 행으로 보면, 중간수요(A)+최종수요(F)-수요(M)=총산출(X)이라는 방정식이 성립된다. 열로 보면, 중간투입(A)+부가가치(V)=총투입(X)의 방정식이 성립된다. 이 두 방정식에서 최종수요(F)-수입(M)=부가가치(V)의 관계식이 도출된다. 따라서 최종수요(F)-수입항목(M)은 소득계정의 지출소득과 부가가치(V)항목을 산업별로 파악하면 생산소득과 요소소득에, 항목별로 분석하면 분배소득에 각각 해당되므로 산업연관표와 소득계정과는 표리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산업연관표와 소득계정은 상이한 분석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추계된 계수들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 차이를 살펴보면 첫째, 지역산업연관표는 지역내 생산활동만 대상으로 하므로 산업별 부가가치의 합은 지역소득계정의 지역내 총생산(GRDP)개념과 일치하지만 지역총생산(GRP)과는 다르다. 따라서 산업별 부가가치에 지역의 순수취소득을 합한다면 지역총생산(GRP)수치와 일치한다.

둘째, 산업연관표의 생산물은 시장가격에 의해 평가하므로 소득계정의 요소비용에 의한 지역내 총생산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에 순간접세(간접세-보조금)를 공제하여야 한다.

셋째, 산업연관표는 수입품과 국산품을 동일한 가격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수입을 CIF(가격+보험료+운임)+관세+수입상품세로 평가하며, 소득계정에서는 CIF가격으로 평가하고 관세 및 수입상품세를 별도의 부가가치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연관표상의 부가가치 총액은 관세 및 수입상품세 만큼 소득계정의 지역내총생산과 차이가 난다.

## 2.2 선행연구 동향

산업연관분석을 관광분야에 처음으로 적용한 것은 1960년에 Harmston이 발표한 “서부지역에 있어서 여행지지출의 간접효과”라는 논문이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관광효과분석의 연구는 Harmston 이후에 Archer(1973)와 Strang(1970)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sup>2)</sup>

2) 김사현, 관광경제학, 경영문화원, 1985, p. 296.

Song & Ahn<sup>3)</sup>은 1975년 및 1978년 산업연관표를 재구성하여 17부문의 산업부문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관광산업은 다른 수출산업에 비해 수입의존도가 낮아 효율성이 높으며, 특히 다면성을 갖고 있는 관광부문은 한국내의 모든 산업에 매우 다양한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산업간의 다양한 관계의 분석을 강조하는 산업연관모형이 분석도구로서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승이<sup>4)</sup>는 1983년 산업연관표를 재구성하여 81부문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는데 이 가운데 관광관련산업이 18부문이다. 이 연구에서 81부문의 산업연관표를 다시 20부문으로 축약시키면서 관광관련산업 18부문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광산업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통합에서 문제점은 관광관련산업의 산출액 전체를 관광산업으로 간주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규모가 과대 추계되었다는 것이다.

김태보<sup>5)</sup>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연구에서 제주경제의 산업구조 중 관광산업을 단일산업으로 분류하여 제주경제의 산업구조, 승수효과 및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관광산업은 식당·숙박업, 여행알선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교통업, 과일, 양봉, 목각·석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가 비록 관광산업만을 주목하고 있는 연구는 아니지만 제주경제 산업구조 중 관광산업과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인식, 이에 대한 분석 및 기술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간의 관계를 파악한 귀중한 연구라고 사료된다.

조현순<sup>6)</sup>은 1988년의 20부문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관광산업이 독립된 21부문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관광관련산업에서 관광과 관련된 부문만을 추출해 내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최승이(1986)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권영각<sup>7)</sup>은 1990년 산업연관표를 재구성하여 24부문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이들 중 관광관련산업 5부문을 통합하여 20부문의 산업연관표를 재구성함으로써 관광산업 규모의 과대추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3) Byung Nak Song & Choung Yong Ahn, "The Economic Impact of Tourism: The Korean Case", in *Tourism in Asia: The Economic Impact*, edited by Elwood A. Pye and Tzong-biau Lin, Singapore University Press, 1983, pp. 101-171.

4) 최승이, "우리나라 관광산업 투자의 산업연관분석,"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1986.

5) 김태보, "제주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성장전망,"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6.

6) 조현순, "외래관광객 지출의 국내경제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산업연관분석 중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1991.

7) 권영각, 『관광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에 관한 투입-산출 분석』, 한국관광공사, 1993.

이 밖에도 현진권(1992)<sup>8)</sup>, 정준무<sup>9)</sup>(1994), 이충기·권경상<sup>10)</sup>(1995), 이충기·박창규<sup>11)</sup>(1996) 등 많은 국내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1970년대 이후 관광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국외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관광객의 최초 지출이 관광지내 소득증대나 고용창출 등의 긍정적인 경제적 편익효과에 의해 지역이나 국가의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순수경제적 이론을 토대로 한 시장경제론적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발전-저발전(또는 중심-주변) 이론 하에 발전국(지역)이 관광지인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인 저발전국(지역)에 자본과 경영 및 기술 등에 의해 경제적으로 종속된다는 정치경제학적 입장이다.

대표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Duffield와 Long<sup>12)</sup>은 스코트랜드의 중앙북부, 중앙저지대, 남부의 3개 대상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 관광객의 지출이 발생하면 지역민의 소득이 증가하며, 이로 인한 지역민의 구매증가로 지역경제가 다변화되고 성장하여 지역내 고용효과를 가져오는 등 연쇄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는 가설을 입증하였다.

Var, Liu, 그리고 Timur의 연구<sup>13)</sup>에서는 터키의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객의 유형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상이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외에도, Archer<sup>14)</sup>의 소규모 경제체제지역인 마우리니우스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 푸에르토리코를 대상으로 한 Ruiz의 연구<sup>15)</sup>, 도시형 관광

- 
- 8) Jin-Kwon Hyun, *The Economic Impact of International Tourism in Korea*, Korea Transport Institute, 1992.
- 9) 정준무, "관광산업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4.
- 10) Choong-Ki Lee and Kyung-Sang Kwon, "Importance of Secondary Impact of Foreign Tourism Receipts on the South Korea Economy," *Journal of Travel Research*, 34(2), 1995, pp. 50-54.
- 11) 이충기·박창규, "한국카지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업연관 모델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0(1), pp. 27-45.
- 12) Brain. S. Duffield and Jonathan Long, "The Role of Tourism in the Economy of Scotland," *Tourism Management*, Vol. 5, 1984, pp.258-265.
- 13) Turgut Var, Juanita Liu, and Alp Timur, "Tourism Income Multiplier for Turkey," *Tourism Management*, Vol. 5, 1984, pp.280-287.
- 14) Brain H. Archer, "Tourism in Mauritius: An Economy Impact Study," *Tourism Management*, Vol. 6, 1985, pp. 50-54.
- 15) Angel L. Ruiz, "Tourism and the Economy of Puerto-Rico: An I-O Approach," *Tourism Management*, Vol. 6, 1986, pp. 61-65.

지인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한 Khan, Seng, 그리고 Cheng의 연구<sup>16)</sup>, Heng와 Low의 연구<sup>17)</sup> 등 이외 다수의 연구들에서 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들 경제적 편익효과에 대한 연구마다 가장 문제로 제시되는 점은 누출이다. 즉 관광은 국가나 지역차원의 경제적 편익효과를 발생시키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발생원에 의한 누출로 인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편익효과는 예상외로 매우 적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 Ⅲ. 분석의 설계 및 결과

#### 3.1 분석의 설계

관광의 지역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우선 1999년 내도 관광객의 내국인 여행형태별 1인당 지출액과 외국인 국적별 1인당 지출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계하여 총지출액을 산출하였다.<sup>18)</sup>

첫째, 조사방법은 군집표본추출법을 통한 표본조사 방법의 실사 설계(field design)를 시행하였다.

둘째, 조사기간 및 시기는 총 4차에 걸쳐 조사되었는데, 1차 조사는 1998년 10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였으며, 2차 조사는 1999년 4월 5일부터 5월 25일까지였고, 3차 조사는 1999년 6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였으며, 마지막 4차 조사로 검증조사는 1999년 11월 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면접원을 선정하여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도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1:1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조사되었으며, 4차 조사까지 내국인 3,337명과 외국인 1,516명의 총 4,85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가 배포되어 4,395매가 회수되었고, 이중에서 분석에 사용된 유효표본의 수는 3,773매(85.8%)였다.

16) Habibullah Khan, Chou Fee Seng and Wong Kwei Cheng, "Tourism Multiplier Effects on Singapore,"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7, 1990, pp.408-416.

17) Toh Mun Heng and Linda Low, "Economic Impact of Tourism in Singapore,"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7, 1990, pp. 246-266.

18) 자세한 내용은 장성수·송재호, 『제주도 관광통계 작성에 관한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00. 2 참조할 것.

넷째,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동행 관광객 형태, 동행 관광객 수, 제주관광 일정, 제주 방문목적, 패키지 상품이용 유무 등을 포함한 관광객 여행특성 부문과 여행경비 부문(패키지 요금, 숙박비, 식사비, 편도 항공요금, 제주도내 교통비, 쇼핑비, 레저·스포츠비, 오락·유흥비, 기타 경비), 그리고 인구통계적 사항으로 연령, 성별, 월가구소득, 거주지역, 도시형태(외국인의 경우 국적) 등을 포함하였다.

이상의 조사결과로 산출된 1999년도 기준 제주도 방문관광객 지출액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1999년도 제주도 관광객 세분지장별 지출액

(단위: 원, 명)

구 분	숙박비	식사비	교통비	쇼핑비	레저 스포츠비	오락 유흥비	기타 경비	1인당 지출액	관광객수	총 지출액	
내 국 인	일반 단체	42,000	58,200	59,400	62,933	104,600	60,533	67,333	454,999	584,000	265,719,416,000
	수학여행	39,400	15,200	20,000	16,400	4,200	6,000	4,000	105,200	211,000	22,197,200,000
	신혼여행	169,929	93,000	98,429	93,629	17,571	14,214	34,000	520,772	317,000	165,084,724,000
	가족여행	80,706	63,795	58,795	41,635	23,617	5,449	23,583	297,580	1,679,000	499,636,820,000
	개별여행	48,490	48,923	45,090	24,173	9,327	50,356	27,385	253,744	629,000	159,604,976,000
외 국 인	일본계	353,061	348,824	120,901	729,729	384,035	861,894	282,282	3,080,726	141,267	435,204,919,842
중국계	174,939	105,869	80,006	248,841	9,014	76,199	82,587	777,455	80,363	62,478,616,165	
영어권	191,006	80,070	84,710	42,170	18,766	23,580	17,040	457,342	8,891	4,066,227,722	
총 계									3,650,521	1,613,992,899,729	

1999년 제주도 방문관광객 총지출액은 1,613,992,899,729원으로 추계되었다. 방문 내·외국인 관광객수는 3,650,521명<sup>19)</sup>으로, 1인당 평균 관광소비 지출액 규모는 442,127원으로 나타났다.

19) 1999년 실제 내도 관광객수는 3,666,836명이고, 본 분석에서의 3,650,521명은 외국인중 기타 국적 외국인 16,444명이 분석에서 제외된 수치인데, 실제로 (3,666,836명 - 3,650,521명) = 16,315명으로 129명의 차이는 관광객 지출액 산출시 관광객수를 반올림하여 생긴 결과임.

내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관광소비 지출액은 327,556원이며,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관광소비 지출액은 2,176,590원이다.

<표 3>의 1999년도 제주도 방문관광객 세분시장별 지출액 산출 결과를 『제주지역의 산업연관모형 개발』<sup>20)</sup>에서의 38개 산업부문의 지역산업연관모형에 대입하기 위해 다음의 <표 4>와 같이 관광객 세분시장별 지출액을 재추계 하였다.

<표 4> 제주지역산업연관모형에 투입하기 위한 관광객 세분시장별 지출액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도소매	음식점 및 숙 박	운수 및 보 관	사회 및 기타서비스	계	관광객수
내 국 인	일반단체	36,752.9	58,516.8	34,689.6	135,760.1	265,719.4	584,000
	수학여행	3,460.4	11,520.6	4,220.0	2,996.2	22,197.2	211,000
	신혼여행	29,680.4	83,348.5	31,202.0	20,853.8	165,084.7	317,000
	가족여행	69,905.2	242,617.2	98,716.8	88,397.7	499,636.8	1,679,000
	개별여행	15,204.8	61,272.8	28,361.6	54,765.8	159,605.0	629,000
외 국 인	일 본 계	103,086.6	99,153.2	17,079.3	215,885.8	435,204.9	141,267
	중 국 계	19,997.6	22,566.6	6,429.5	13,484.9	62,478.6	80,363
	영 어 권	374.9	2,410.1	753.2	528.0	4,066.2	8,891
총 계		278,462.8	581,405.7	221,452.0	532,672.3	1,613,992.9	3,650,521

주) 도소매=쇼핑비, 음식 및 숙박=숙박비+식사비, 운수 및 보관=교통비,  
사회 및 기타 서비스=레저스포츠+오락·유흥비+기타경비로 산출되었음.

### 3.2 분석의 결과

#### 3.2.1 관광산업의 산출효과

제주도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중에서 산출효과의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5>와 <표 6>

20) 고성보·김태보·이돈재, 『제주지역의 산업연관모형 개발』, 제주발전연구원, 1999.

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는 1999년 제주도 방문 관광객 지출액을 개발된 지역산업연관모형에 적용하기 위해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사회 및 기타 서비스로 재구분·통합하여 관광객 세분시장별로 총산출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며, <표 6>은 제주도 관광객 세분시장별 38개부문 산출효과를 제시하고 있다<sup>21)</sup>.

<표 5> 1999년도 제주도 방문관광객 지출내역에 따른 세분시장별 총산출효과

(단위: 백만원)

구분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사회 및 기타서비스	계		
내 국 인	일반단체	총산출효과	49,614.9	85,047.7	42,902.7	194,412.4	371,979.7	
		1인당	0.085	0.146	0.073	0.333	0.637	
	수학여행	총산출효과	4,671.4	16,744.3	5,219.1	4,290.6	30,925.5	
		1인당	0.022	0.079	0.025	0.020	0.147	
	신혼여행	총산출효과	40,067.3	121,140.7	38,589.3	29,863.3	229,660.6	
		1인당	0.126	0.382	0.122	0.094	0.724	
	가족여행	총산출효과	94,369.2	352,625.5	122,089.9	126,588.0	695,671.5	
		1인당	0.056	0.210	0.073	0.075	0.414	
	개별여행	총산출효과	20,525.9	89,055.3	35,076.5	78,426.2	223,083.8	
		1인당	0.033	0.142	0.056	0.125	0.355	
	외 국 인	일본계	총산출효과	139,162.8	144,111.6	21,123.0	309,154.6	613,552.0
			1인당	0.985	1.020	0.150	2.188	4.343
	중국계	총산출효과	26,996.0	32,798.8	7,951.8	19,310.8	87,057.3	
		1인당	0.336	0.408	0.099	0.240	1.083	
	영어권	총산출효과	506.1	3,502.9	931.5	756.1	5,696.7	
		1인당	0.057	0.394	0.105	0.085	0.641	
합 계	총산출효과	375,913.6	845,026.8	273,882.7	762,802.1	2,257,627.1		
	1인당	0.103	0.231	0.075	0.209	0.618		

21) 본 연구의 결과는 관광객 지출내역(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에 따른 관광세분시장별 제주경제 전산업(38개 산업부문별) 산출효과를 모두 분석하였으나 축약하여 기재하였음.

< 표 6 > 1999년도 제주도 방문관광객 세분시장별 산출효과

(단위: 백만원)

구 분	내국인(여행형태별)					외국인(국적별)			계
	일반단체	수학여행	신혼여행	가족여행	개별여행	일본계	중국계	영어권	
벼	6.4	0.6	4.2	12.6	4.0	10.9	1.5	0.1	40.3
맥류 및 잡곡	1.8	0.1	0.5	1.8	0.8	3.0	0.2	0.0	8.2
채소 및 과일	2.8	0.1	0.8	2.7	1.3	4.5	0.4	0.0	12.5
감귤	1.8	0.1	0.5	1.8	0.8	3.0	0.2	0.0	8.3
기타 식용작물	3.1	0.2	1.2	4.1	1.6	5.0	0.5	0.0	15.7
감사	0.4	0.0	0.1	0.3	0.2	0.6	0.0	0.0	1.6
화훼 및 비식용작물	19.0	0.9	6.6	22.1	9.3	31.0	2.9	0.2	92.0
축산	1.7	0.1	0.6	2.0	0.8	2.8	0.3	0.0	8.3
양돈	0.8	0.0	0.2	0.8	0.4	1.3	0.1	0.0	3.6
임산물	19.5	2.3	16.9	50.3	14.5	33.1	5.5	0.5	142.5
수산어획	3.0	0.1	0.9	3.2	1.4	4.8	0.4	0.0	14.0
수산양식	1.3	0.1	0.7	2.3	0.8	2.1	0.3	0.0	7.5
광산품	80.3	9.0	66.1	196.8	57.6	137.3	21.9	1.8	570.8
음식료품	73.3	2.7	19.7	69.6	33.0	119.2	9.9	0.5	328.0
섬유, 가죽제품	50.7	4.0	28.8	90.2	30.6	81.9	10.1	0.8	297.0
목재, 종이제품	324.2	38.3	283.1	828.5	234.0	572.4	97.9	7.4	2,385.9
인쇄, 출판 및 복제	1,817.5	117.2	866.2	2,708.5	973.4	3,042.9	360.9	21.5	9,906.0
석유, 석탄제품	33.1	3.9	28.6	86.2	24.7	43.9	8.5	0.7	229.5
화학제품	738.5	56.1	409.2	1,292.1	441.3	1,112.9	140.8	10.7	4,201.6
비금속광물제품	475.5	56.6	412.9	1,227.0	353.2	810.8	133.2	11.3	3,480.7
제1차금융	0.8	0.1	0.5	1.6	0.5	1.2	0.2	0.0	4.8
금융제품	159.1	16.0	116.7	353.2	108.2	265.0	38.8	3.2	1,060.2
일반기계	166.3	13.7	101.1	306.9	99.4	279.1	38.4	2.6	1,007.5
전기전자기계	83.5	7.2	52.8	162.0	52.3	135.5	18.5	1.4	513.2
정밀기구	3.2	0.2	1.3	4.2	1.6	5.4	0.6	0.0	16.6
수송장비	241.5	24.6	182.0	570.6	172.2	234.1	48.0	4.4	1,477.5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212.4	24.0	174.4	523.0	154.2	357.3	55.9	4.8	1,506.0
전력, 가스 및 수도	4,437.7	497.8	3,641.1	10,833.7	3,169.8	7,620.9	1,213.1	98.7	31,512.9
건설	1,876.5	164.9	1,216.5	3,664.8	1,159.0	3,228.7	455.1	31.4	11,796.9
<b>도소매</b>	<b>39,254.3</b>	<b>3,702.6</b>	<b>31,458.5</b>	<b>75,346.1</b>	<b>16,882.5</b>	<b>106,777.2</b>	<b>20,569.6</b>	<b>421.2</b>	<b>294,412.1</b>
<b>음식점 및 숙박</b>	<b>58,516.8</b>	<b>11,520.6</b>	<b>83,348.5</b>	<b>242,617.2</b>	<b>61,272.8</b>	<b>99,153.2</b>	<b>22,566.6</b>	<b>2,410.1</b>	<b>581,405.7</b>
<b>운수 및 보관</b>	<b>41,328.6</b>	<b>4,884.0</b>	<b>36,154.4</b>	<b>113,526.6</b>	<b>32,760.3</b>	<b>27,242.0</b>	<b>8,146.8</b>	<b>874.4</b>	<b>264,917.1</b>
<b>통신 및 방송</b>	4,641.8	404.9	3,114.9	8,859.9	2,621.2	8,890.0	1,418.0	67.7	30,018.5
<b>금융 및 보험</b>	8,051.3	812.6	6,095.8	17,851.1	5,211.9	13,819.5	2,299.9	147.6	54,289.7
<b>부동산 및 사업서비스</b>	49,212.9	4,399.4	32,428.3	97,764.6	30,755.3	83,711.5	11,934.1	838.7	311,044.7
<b>공공행정 및 국방</b>	0.0	0.0	0.0	0.0	0.0	0.0	0.0	0.0	0.0
<b>교육 및 보건</b>	608.8	66.6	490.8	1,471.3	431.0	941.5	159.2	12.8	4,182.0
<b>사회 및 기타서비스</b>	<b>159,529.4</b>	<b>4,093.8</b>	<b>28,935.1</b>	<b>115,211.9</b>	<b>66,047.9</b>	<b>254,866.5</b>	<b>17,299.1</b>	<b>722.1</b>	<b>646,705.7</b>
<b>총산출효과</b>	<b>371,979.7</b>	<b>30,925.5</b>	<b>229,660.6</b>	<b>695,671.5</b>	<b>223,083.8</b>	<b>613,552.0</b>	<b>87,057.3</b>	<b>5,696.7</b>	<b>2,257,627.1</b>
<b>1인당</b>	<b>0.637</b>	<b>0.147</b>	<b>0.724</b>	<b>0.414</b>	<b>0.355</b>	<b>4.343</b>	<b>1.083</b>	<b>0.641</b>	<b>0.618</b>

1999년도 제주도 방문관광객 총지출액 1조 6,139억 9천 3백만원이 지역경제에 파급시킨 총산출효과는 2조 2,576억 2천 7백만원으로 계량되었다. 관광산업 자체에는 1조 7,874억 4천 1백만원, 다른 산업에 대해서는 4,701억 8천 7백만원의 파급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계되었다.

관광세분시장별로 비교해 보면, 내국인의 여행형태별 산출효과에서는 가족여행의 파급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다음으로는 일반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적별 산출효과에서는 일본계가 가장 높은 파급효과를 보이고 있다. 1인당 산출효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계 세분시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1인당 산출효과 세분시장 집단은 수학여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 3.2.1 관광산업의 고용효과

제주도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중에서 고용효과의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7>과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7> 1999년도 제주도 방문관광객 지출내역에 따른 세분시장별 총고용효과

(단위: 명)

구 분		도소매	음식점 및 숙 박	운수 및 보 관	사회 및 기타서비스	계		
내 국 인	일반단체	총고용효과	2,356.8	6,404.8	1,282.3	6,791.4	16,835.3	
		1인당	0.004	0.011	0.002	0.012	0.029	
	수학여행	총고용효과	221.9	1,261.0	156.0	149.9	1,788.7	
		1인당	0.001	0.006	0.001	0.001	0.008	
	신혼여행	총고용효과	1,903.2	9,122.7	1,153.4	1,043.2	13,222.6	
		1인당	0.006	0.029	0.004	0.003	0.042	
	가족여행	총고용효과	4,482.6	26,555.1	3,649.1	4,422.1	39,109.0	
		1인당	0.003	0.016	0.002	0.003	0.023	
	개별여행	총고용효과	975.0	6,706.5	1,048.4	2,739.7	11,469.5	
		1인당	0.002	0.011	0.002	0.004	0.018	
	외 국 인	일본계	총고용효과	6,610.4	10,852.6	631.3	10,799.7	28,894.0
			1인당	0.047	0.077	0.004	0.076	0.205
중국계		총고용효과	1,282.3	2,470.0	237.7	674.6	4,664.6	
		1인당	0.016	0.031	0.003	0.008	0.058	
영어권		총고용효과	24.0	263.8	27.8	26.4	342.1	
		1인당	0.003	0.030	0.003	0.003	0.038	
합 계	총고용효과	17,856.3	63,636.5	8,186.1	26,646.9	116,325.8		
	1인당	0.005	0.017	0.002	0.007	0.032		

< 표 8 > 1999년도 제주도 방문관광객 세분시장별 고용효과

(단위: 명)

구 분	내국인(여행형태별)					외국인(국적별)			계
	일반단체	수학여행	신혼여행	가족여행	개별여행	일본계	중국계	영어권	
버	0.2	0.0	0.1	0.3	0.1	0.3	0.0	0.0	1.0
맥류 및 잡곡	1.4	0.1	0.4	1.4	0.6	2.3	0.2	0.0	6.4
채소 및 과실	0.6	0.0	0.2	0.6	0.3	1.0	0.1	0.0	2.8
감귤	0.1	0.0	0.0	0.1	0.1	0.2	0.0	0.0	0.6
기타 식용작물	0.4	0.0	0.2	0.5	0.2	0.7	0.1	0.0	2.1
감자	0.0	0.0	0.0	0.0	0.0	0.1	0.0	0.0	0.2
화훼 및 비식용작물	0.6	0.0	0.2	0.7	0.3	1.0	0.1	0.0	2.9
축산	0.0	0.0	0.0	0.1	0.0	0.1	0.0	0.0	0.2
양돈	0.0	0.0	0.0	0.0	0.0	0.0	0.0	0.0	0.1
임산물	2.0	0.2	1.8	5.3	1.5	3.5	0.6	0.0	15.0
수산업회	0.1	0.0	0.0	0.1	0.0	0.2	0.0	0.0	0.4
수산양식	0.1	0.0	0.1	0.3	0.1	0.2	0.0	0.0	0.9
광산품	1.3	0.1	1.1	3.2	0.9	2.3	0.4	0.0	9.4
음식료품	1.4	0.1	0.4	1.3	0.6	2.3	0.2	0.0	6.3
심유, 가공제품	38.9	3.0	22.1	69.2	23.5	62.8	7.7	0.6	227.8
목재, 종이제품	11.5	1.4	10.1	29.5	8.3	20.4	3.5	0.3	85.0
인쇄, 출판 및 복제	74.4	4.8	35.4	110.8	39.8	124.5	14.8	0.9	405.5
식유, 서단제품	0.5	0.1	0.4	1.3	0.4	0.7	0.1	0.0	3.5
화학제품	12.3	0.9	6.8	21.5	7.4	18.5	2.3	0.2	70.0
비금속광물제품	5.9	0.7	5.1	15.1	4.4	10.0	1.6	0.1	43.0
제1차금속	0.0	0.0	0.0	0.1	0.0	0.1	0.0	0.0	0.3
금속제품	8.9	0.9	6.5	19.7	6.0	14.7	2.2	0.2	59.0
일반기계	3.9	0.3	2.4	7.3	2.3	6.6	0.9	0.1	23.8
전기전자기계	6.5	0.6	4.1	12.7	4.1	10.6	1.4	0.1	40.2
정밀기구	0.3	0.0	0.1	0.3	0.1	0.4	0.0	0.0	1.3
수송장비	7.4	0.8	5.6	17.5	5.3	7.2	1.5	0.1	45.4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28.8	3.3	23.7	70.9	20.9	48.5	7.6	0.7	204.2
전력, 가스 및 수도	46.6	5.2	38.2	113.7	33.3	80.0	12.7	1.0	330.8
건설	19.2	1.7	12.5	37.6	11.9	33.1	4.7	0.3	120.9
<b>도소매</b>	<b>2,232.7</b>	<b>210.6</b>	<b>1,789.3</b>	<b>4,285.6</b>	<b>960.3</b>	<b>6,073.3</b>	<b>1,170.0</b>	<b>24.0</b>	<b>16,745.7</b>
<b>음식점 및 숙박</b>	<b>5,943.4</b>	<b>1,170.1</b>	<b>8,465.4</b>	<b>24,641.9</b>	<b>6,223.3</b>	<b>10,070.7</b>	<b>2,292.0</b>	<b>244.8</b>	<b>59,051.5</b>
<b>운수 및 보관</b>	<b>1,269.1</b>	<b>150.0</b>	<b>1,110.2</b>	<b>3,486.0</b>	<b>1,006.0</b>	<b>836.5</b>	<b>250.2</b>	<b>26.8</b>	<b>8,134.7</b>
통신 및 방송	98.7	8.6	66.2	188.4	55.7	189.0	30.1	1.4	638.3
금융 및 보험	265.9	26.8	201.3	589.6	172.1	456.4	76.0	4.9	1,793.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310.6	27.8	204.7	617.1	194.1	528.4	75.3	5.3	1,903.4
공공행정 및 국방	0.0	0.0	0.0	0.0	0.0	0.0	0.0	0.0	0.0
교육 및 보건	63.3	6.9	51.1	153.0	44.8	97.9	16.6	1.3	435.0
사회 및 기타서비스	<b>6,378.0</b>	<b>163.7</b>	<b>1,156.8</b>	<b>4,606.2</b>	<b>2,640.6</b>	<b>10,189.5</b>	<b>691.6</b>	<b>28.9</b>	<b>25,855.3</b>
총고용효과	16,835.3	1,788.7	13,222.6	39,109.0	11,469.5	28,894.0	4,664.6	342.1	116,325.8
1인당	0.029	0.008	0.042	0.023	0.018	0.205	0.058	0.038	0.032

관광산업은 제주도 전체에 대해서 116,326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관광산업 자체에는 109,787명의 고용효과를, 다른 산업에 대해서는 6,539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와 간접 고용효과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광세분시장별로 비교해 보면, 내국인의 여행형태별 고용효과에서는 가족여행의 파급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파급효과를 보이는 세분시장은 수학여행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외국인의 국적별 고용효과에서는 일본계가 가장 높은 파급효과를 보이고 있다.

### 3.2.3 관광산업의 소득효과

제주도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중에서 소득효과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9>와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9> 1999년도 제주도 방문관광객 지출내역에 따른 세분시장별 총소득효과

(단위: 백만원)

구 분		도소매	음식점 및 숙 박	운수 및 보 관	사회 및 기타서비스	계		
내 국 인	일반단체	총소득효과	32,553.4	78,978.5	17,079.0	113,593.8	242,204.7	
		1인당	0.056	0.135	0.029	0.195	0.415	
	수학여행	총소득효과	3,065.0	15,549.0	2,077.7	2,507.0	23,198.7	
		1인당	0.015	0.074	0.010	0.012	0.110	
	신혼여행	총소득효과	26,289.1	112,493.1	15,361.9	17,448.9	171,593.0	
		1인당	0.083	0.355	0.048	0.055	0.541	
	가족여행	총소득효과	61,917.7	327,453.5	48,602.1	73,964.4	511,937.7	
		1인당	0.037	0.195	0.029	0.044	0.305	
	개별여행	총소득효과	13,467.5	82,698.1	13,963.5	45,823.4	155,953.0	
		1인당	0.021	0.131	0.022	0.073	0.248	
	외 국 인	일본계	총소득효과	91,307.8	133,824.3	8,408.8	180,636.8	414,177.6
			1인당	0.646	0.947	0.060	1.279	2.932
영 어 권	중국계	총소득효과	17,712.6	30,457.5	3,165.5	11,283.1	62,618.8	
		1인당	0.220	0.379	0.039	0.140	0.779	
합 계	영 어 권	총소득효과	332.1	3,252.9	370.8	441.8	4,397.6	
		1인당	0.037	0.366	0.042	0.050	0.495	
합 계	총 계	총소득효과	246,645.2	784,706.9	109,029.3	445,699.7	1,586,081.0	
		1인당	0.068	0.215	0.030	0.122	0.434	

< 표 10 > 1999년도 제주도 방문관광객 세분시장별 소득효과

(단위: 백만원)

구 분	내국인(여행형태별)					외국인(국적별)			계
	일반단체	수학여행	신혼여행	가족여행	개별여행	일본계	중국계	영어권	
비	3.3	0.3	2.2	6.6	2.1	5.6	0.8	0.1	20.9
맥류 및 잡곡	1.1	0.0	0.3	1.1	0.5	1.9	0.2	0.0	5.2
채소 및 과일	1.6	0.1	0.4	1.5	0.7	2.6	0.2	0.0	7.0
감귤	1.4	0.1	0.4	1.3	0.6	2.2	0.2	0.0	6.1
기타 식용작물	2.1	0.1	0.8	2.7	1.1	3.3	0.3	0.0	10.6
감자	0.2	0.0	0.1	0.2	0.1	0.4	0.0	0.0	1.1
화훼 및 비식용작물	9.3	0.4	3.2	10.8	4.5	15.2	1.4	0.1	45.1
축산	0.6	0.0	0.2	0.7	0.3	1.0	0.1	0.0	3.0
양돈	0.2	0.0	0.1	0.2	0.1	0.4	0.0	0.0	1.0
임산물	15.3	1.8	13.3	39.5	11.4	26.0	4.3	0.4	112.0
수산어획	1.8	0.1	0.6	1.9	0.9	2.9	0.3	0.0	8.4
수산양식	0.7	0.1	0.4	1.3	0.4	1.2	0.1	0.0	4.2
광산품	19.2	2.2	15.8	47.1	13.8	32.8	5.2	0.4	136.6
음식료품	17.5	0.7	4.7	16.6	7.9	28.5	2.4	0.1	78.3
섬유, 가죽제품	408.8	32.1	232.4	727.9	247.3	660.7	81.3	6.3	2,396.9
목재, 종이제품	160.8	19.0	140.5	411.1	116.1	284.0	48.6	3.7	1,183.7
인쇄, 출판 및 복제	992.7	64.0	473.1	1,479.4	531.7	1,662.1	197.1	11.7	5,412.0
석유, 석탄제품	11.6	1.4	10.0	30.2	8.7	15.4	3.0	0.3	80.4
화학제품	175.4	13.3	97.2	307.0	104.9	264.4	33.5	2.5	998.2
비금속광물제품	85.3	10.2	74.1	220.1	63.4	145.4	23.9	2.0	624.3
제1차금속	0.8	0.1	0.5	1.6	0.5	1.2	0.2	0.0	4.9
금속제품	159.9	16.1	117.3	355.0	108.8	266.3	39.0	3.2	1,065.6
일반기계	56.1	4.6	34.1	103.6	33.6	94.2	13.0	0.9	340.1
전기전자기계	83.9	7.3	53.0	162.8	52.6	136.1	18.5	1.4	515.7
정밀기구	3.1	0.2	1.3	4.0	1.5	5.1	0.6	0.0	15.7
수송장비	126.4	12.9	95.3	298.7	90.1	122.5	25.1	2.3	773.4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328.4	37.1	269.7	808.8	238.5	552.5	86.4	7.5	2,329.0
전력, 가스 및 수도	841.3	94.4	690.2	2,053.8	600.9	1,444.7	230.0	18.7	5,973.9
건설	315.5	27.7	204.5	616.1	194.8	542.8	76.5	5.3	1,983.2
<b>도소매</b>	<b>30,090.9</b>	<b>2,838.3</b>	<b>24,114.9</b>	<b>57,757.5</b>	<b>12,941.5</b>	<b>81,851.5</b>	<b>15,767.9</b>	<b>322.9</b>	<b>225,685.4</b>
<b>음식점 및 숙박</b>	<b>71,848.8</b>	<b>14,145.4</b>	<b>102,338.0</b>	<b>297,893.2</b>	<b>75,232.7</b>	<b>121,743.5</b>	<b>27,708.0</b>	<b>2,959.2</b>	<b>713,868.7</b>
<b>운수 및 보관</b>	<b>16,309.4</b>	<b>1,927.4</b>	<b>14,267.5</b>	<b>44,800.7</b>	<b>12,928.1</b>	<b>10,750.4</b>	<b>3,214.9</b>	<b>345.0</b>	<b>104,543.5</b>
<b>통신 및 방송</b>	1,907.4	166.4	1,280.0	3,640.7	1,077.1	3,653.1	582.7	27.8	12,335.1
<b>금융 및 보험</b>	5,228.0	527.7	3,958.2	11,591.2	3,384.2	8,973.4	1,493.4	95.8	35,251.9
<b>부동산 및 사업서비스</b>	4,027.1	360.0	2,653.6	8,000.0	2,516.7	6,850.1	976.6	68.6	25,452.6
<b>공공행정 및 국방</b>	0.0	0.0	0.0	0.0	0.0	0.0	0.0	0.0	0.0
<b>교육 및 보건</b>	1,089.3	119.2	878.2	2,632.5	771.1	1,684.6	284.9	22.8	7,482.7
<b>사회 및 기타서비스</b>	<b>107,879.3</b>	<b>2,768.4</b>	<b>19,566.9</b>	<b>77,910.3</b>	<b>44,663.9</b>	<b>172,349.6</b>	<b>11,698.2</b>	<b>488.3</b>	<b>437,324.8</b>
<b>총소득효과</b>	<b>242,204.7</b>	<b>23,198.7</b>	<b>171,593.0</b>	<b>511,937.7</b>	<b>155,953.0</b>	<b>414,177.6</b>	<b>62,618.8</b>	<b>4,397.6</b>	<b>1,586,081.0</b>
<b>1인당</b>	<b>0.415</b>	<b>0.110</b>	<b>0.541</b>	<b>0.305</b>	<b>0.248</b>	<b>2.932</b>	<b>0.779</b>	<b>0.495</b>	<b>0.434</b>

관광산업의 소득효과는 전체적으로 1조 5,860억 8천 100만원으로 추정되었다. 관광산업 자체에는 1조 4,814억 2천 2백만원의 소득효과를 가져 왔고, 다른 산업에 대해서는 1,046억 5천 8백만원의 소득효과를 창출하였다.

관광세분시장별로 비교해 보면, 내국인의 여행형태별 소득효과에서는 가족여행의 파급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일반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파급효과를 보이는 세분시장은 수학여행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 IV. 결론 및 시사

제주도에서는 관광산업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관광산업은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 중에서 생산, 고용, 소득효과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제주도 산업구조에서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과 어떠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가?

지금까지 산업연관모형을 적용한 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해서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연구결과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적용한 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제주도에 적용시키는데 있어서 기존의 방법을 활용하면서 보다 세밀한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우선 관광객 소비지출 구조를 관광시장세분화별로 구분하였으며, 또한 관광객 소비지출 구조(숙박비, 식사비, 교통비, 쇼핑비, 레저스포츠비, 오락유희비, 기타 등 7개)를 기존에 개발된 제주지역 산업연관모형에 적용하기 위해 4개 부문(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사회 및 기타 서비스)로 재구성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산출, 고용, 소득 모든 면에서 타산업에 비해 아주 높은 파급효과를 갖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특히 관광 세분시장별 분석결과, 내국인 중에서 가족여행 관광객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 제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는 일반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세분시장별로는 일본계 관광시장이 가장 높은 파급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잠재력이 무한한 중국계 시장도 제주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전략이 향후 어느 시장을 표적시장으로 선정하고 초점을

맞춰 공략하는 것이 제주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제주도가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함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객의 지출구조를 파악한 후 관광산출액을 추계하여 이를 관광산업으로 선정하고 제주도 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관광객의 도내 지출내역을 내국인의 경우 여행형태별, 외국인의 경우 국적별로 관광시장세분화하여 분석되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특성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관광산업의 분류나 통합은 향후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재검토되어야 하며, 지역산업 연관모형을 적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정확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에서 관광산업에 지출되는 배분구조와 관광산업에 대한 투입구조 등을 밝히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 관광산업의 통합과 독립에 대한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산업연관모형에 필요한 분석자료의 추계방법과 지역실정 및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적 측면에서도 보다 정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중에서 누출의 규모를 밝히고 실질적인 역내 소득잔류효과 규모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성보·김태보·이돈재(1999), 제주지역의 산업연관모형 개발, 제주발전연구원.
- 권영각(1993), 관광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에 관한 투입-산출 분석, 한국관광공사.
- 김사헌(1985), 관광경제학, 경영문화원.
- 김태보(1986), “제주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성장전망,”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충기·박창규(1996), “한국카지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업연관 모델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0(1).
- 장성수·송재호(2000), 제주도 관광통계 작성에 관한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정준무(1994), “관광산업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조현순(1991), “외래관광객 지출의 국내경제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산업연관분석 중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최승이(1986), “우리나라 관광산업 투자의 산업연관분석,”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한국은행(1998), 1995년 전국산업연관표.
- Hyun, Jin-Kwon(1992), *The Economic Impact of International Tourism in Korea*, Korea Transport Institute.
- Song, Byung Nak & Choung Yong Ahn(1983), “The Economic Impact of Tourism: The Korean Case”, in *Tourism in Asia: The Economic Impact*, edited by Elwood A. Pye and Tzong-biau Lin, Singapore University Press.
- Archer, Brain H.(1985), “Tourism in Mauritius: An Economy Impact Study,” *Tourism Management*, Vol. 6.
- Duffield, Brain. S., and Jonathan Long(1984), “The Role of Tourism in the Economy of Scotland,” *Tourism Management*, Vol. 5.
- Heng, Toh Mun and Linda Low(1990), “Economic Impact of Tourism in Singapore,”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7.

- Khan, Habibullah, Chou Fee Seng and Wong Kwei Cheng(1990), "Tourism Multiplier Effects on Singapore,"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7.
- Lee, Choong-Ki and Kyung-Sang Kwon(1995), "Importance of Secondary Impact of Foreign Tourism Receipts on the South Korea Economy,"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34.
- Ruiz, Angel L.(1986), "Tourism and the Economy of Puerto-Rico: An I-O Approach," *Tourism Management*, Vol. 6.
- Var, Turgut, Juanita Liu, and Alp Timur(1984), "Tourism Income Multiplier for Turkey," *Tourism Management*, Vol. 5.